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The Validity of Developing a Three Generation Family Apartment
as a Cultural Housing Model in Korea: The Empirical Basis

이 연 숙**
Lee, Yeun Sook
신 화 경***
Shin, Hwa Kyoung
이 선 미***
Lee, Sun Mi
윤 영 선***
Yoon, Young 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validity of developing a three generation family apartment as a cultural housing model in Korea. This was done through interviews, a questionnaire mailing survey and the delphi metho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trong preference for the elderly to live together with their married children, whereas their married children preferred to live independently, being separated from their old parents.

Housewives of the younger generation recognized many advantages or good points of the three generation living together. They, however pointed out many disadvantages as well. Most of the good points were related to psychological comfortableness stemming from living close each other, while most of the bad points

* 본 연구는 "90년도 문화 정책과제인 "한국
의 주거문화 모델개발 보급방안 연구"의 내
용중 일부임. 전문보고서는 문화부, 문화발
전 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 연구
실에 있음.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부교수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박사과정

to behavioral constraints stemming from living together in one residential unit. This suggested that a new type of housing, which provides privacy for each generation as well as the feeling of closenes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needs to be developed to disseminate positive aspects of the three generation family culture.

There is a concensus among professionals that the three generation family apartment is a promising cultural housing model in korea, especially for the elderly in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핵가족 주거문화는 현대 산업사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주로 생활의 기능성 및 편의성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급속히 과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자녀교육의 부재, 윤리관 저하 및 정서적 결핍 등 사회적, 가족적, 인간적 문제의 부정적인 시각이 지적되어 있어 이제 그 장기적 효과를 다시 평가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핵가족화 경향으로 소외되어 오던 삼대동거 가족의 장점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핵가족의 꾸준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노인의 상당한 비율이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어 삼대동거가 주요 가족체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복지체제가 미비하고 선가정 후사회보장이라는 정책방향과 함께 한국인의 의식이 노부모 부양을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것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시대의 주택중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파트는 일반적인 가족형태인 핵가족을 대상으로 건축, 제공되는 상태이므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 삼대가족 동거시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갖게 한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일주택에서 삼대가 기거하기를 회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기

도 하여왔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핵가족 현상에 대한 문제와 노령화 사회에서 대두되는 노인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인 노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삼대동거 가족을 위한 삼대동거 주거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단계에 왔다.

그러므로 한국적 주거문화와 노인복지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을 위해 삼대동거 가족을 위한 집합주거환경 개발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실제적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을 한국적 주거문화모델로 개발하며, 그 모델의 보급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현재 시기적 상황과 가치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필요한 제반연구 내용중 삼대가족 아파트의 개발에 대해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검토¹⁾한데 이어, 실증적 측면에서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필요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1)본 연구 조사대상의 범위는 삼대가족 형태를 지닌 중산층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계층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중산층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문화

1) 이연숙의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11권 1호. 1991년 12월. 17~35.

적 주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이며, 일반적으로 문화는 그 사회의 중산층이 갖는 의식, 욕구, 생활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특히 오늘날의 중산층은 그 범위가 넓고 사회의 경향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 크므로 한국형 주거문화를 바람직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태의 경우, 삼대가족은 한국적 주거문화에서 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문화의 핵심으로 이 가족형태가 문화를 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 주택형태의 경우 집합주택은 많은 중산층들을 수용하고 있고, 미래 산업사회의 주된 주거형태로 지속 발전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핵가족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므로 가족을 이산시켜 왔던 만큼이나 이제는 가족을 통합시키는 데에도 기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제반 사회적 상황에서 미래 노인주거문제, 주거환경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삼대동거란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가족이 같이 사는 주거로 이것의 범위는 현대주거와 같이 동일 평면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부터 전통주거에서처럼 같은 울타리 내의 다른 채를 이용하며 거주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에 따라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전통주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동일 평면에서 같이 사는 것만이 동거인 것으로 그 개념이 고정화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여 동거 개념을 현대적으로 비약시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삼대동거의 범위에 동일 주호내의 거주 뿐아니라 인접주호의 거주, 동일건물 내의 거주, 단지내 다른 건물에서의 거주까지를 포함하였다.

3)삼대가족 아파트는 하나의 새로운 계획주거환경으로서 종래의 주거개념과는 달리 같은 집에서의 동거뿐 아니라 같은 단지내 다른 건물의 주호에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주거대안

이 있고 노인을 위한 환경과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가 통합되어 있으며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현재의 단지보다 강화되어 있는 방어진체제의 주거환경이다.

II. 문헌고찰

기존 문헌을 배경으로 하는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은 이연숙외(1992)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실증적 연구부분에 주요배경이 되는 삼대동거의 장·단점만을 요약 정리하였다.

한 주택내에서 삼대가 동거함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은 가정생활의 제반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삼대동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의 연구는 그동안 실증적인 측면보다는 연구의 진행을 위한 기초로, 선행연구에서 인용하거나 분석하여 문헌고찰부분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삼대동거에 따른 장점은 선행연구 중 동거의 이유, 동거시의 좋은점, 동거의 동기, 동거 결정요인 등에서, 삼대 동거에 따른 단점은 선행연구 중 동거시 불편한 점, 부모와의 별거 이유, 동거시 문제점, 동거 기피 요인 등에서 언급되어진 내용을 각각 파악하였다. 이들 내용이 다루어진 연구는 조원덕(1984)의 '직계 3세대를 위한 주거계획', 지순(1986)의 '삼세대 주택의 개발방향', 박재간(1986)의 '노인 동거가족의 주택문제와 그 해결방안의 모색', 이해순(1987)의 '중년층의 3대 동거주택 조건에 관한 연구', 민경애, 김혜정(1987)의 '3대 가족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박연수(1986)의 '청년의 부모와의 동거의식 및 동거시 주거조건에 관한 연구', 서병숙, 장선주(1990)의 '노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생활교류 연구', 장선주(1991)의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전창욱(1991)의 '한국노인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등이다. 각 연구에서 다룬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표1>

〈표 1〉 삼대 등거의 장·단점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 정리

주요 개념	내 용	
	장 점	단 점
심리적 측면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부담감
사회문화적 측면	가풍, 전통계승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 의견 충돌
	친척간 유대증진	
	손자녀 양육시 교육적 효과	
경제적 측면	금전, 시간, 노력의 경제성	경제적 부담감
공간적 측면	공간사용 및 주택문제 해결	주택규모 협소/공간사용 방법의 차이
생활행위적 측면	가족관계 및 노인건강 관리 용이성	생활시간대의 차이
		사생활의 결여
		행위의 규제
		가사의 부담 /노인의 건강관리

과 같이 크게 심리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공간적 측면, 생활행위적 측면으로 나누어 진다.

Ⅲ. 연구방법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적 접근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델파이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특성과 주거에 대한 욕구를 노인 및 자녀부부 양세대를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일반화를 위한 설문조사의 도구개발을 위해 사전조사로서도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 및 보급에 더 영향력이 있으리라 생

각되는 한세대가 될 것이므로, 이 조사를 통해 한 가족의 생활상을 노인 자녀 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응답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삼대가족 주거유형 중 일부가 건설되어 있는 서울의 상계지역과 목동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삼대가족으로 무선표집에 의하여 추출한 57가구였다. 동거의식이나 생활에 대한 욕구등에 있어서 양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므로 삼대가족의 요구사항이나 주택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세대를 면접하였다. 면접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사항, 삼대동거의 장·단점과 선호하는 공간상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시기는 1991년 2월 28일 부터 4월 9일까지이며 분석방법으로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2. 설문조사

면담조사 결과에 대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면접조사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역인 상계지역과 목동지역으로 하였으며, 그 조사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삼대가 동거하고 있는 가구들 중 실제 삼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국민주택 규모이상에 거주하는 주부²⁾로 제한하였다. 조사방법은 우편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삼대동거 가구의 장·단점과 선호하는 공간상이었다.

조사시기는 1991년 5월 30일 부터 1991년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812 사례중 현재 삼대가 함께 살고 있는 649가구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3. 델파이 조사

삼대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의 개발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들의 시각을 추가하기 위하여 삼대가족형 아파트와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델파이 조사를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에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연구자는 각 전문가와 우편으로 의사교환을 하고 중간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결과를 제공하여 참여한 모든 전문가가 연구자와만 접촉할 뿐 전문가들간의 접촉은 하지 않고 중간결과물을 참고해 가면서 독립적으로 응답하게 하여 그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연구방법이다. 조사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삼대가족형 아파트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건축/조경분야

2) 면접조사결과, 많은 항목에서 노인과 주부간에 응답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삼대동거의 단점 인식이나 공간에 대한 욕구등에서, 주부의 응답이 더 민감하고 다양하게 나타났고, 실제가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아파트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주부에게 더욱 유인가가 높은 방향으로 배려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의 생활상등을 더 잘 파악하리라는 가정하에 주부를 선정하였음.

와 세무분야, 사회학/사회문제 분야, 노인 및 가족복지/주거학 분야에 소속된 전문가들로 총 35명이었다.

델파이 조사는 우편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1991년 7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2, 3차 조사시 1, 2차 조사 결과표를 동봉하였다. 이것은 델파이 조사기법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응답자들이 서로 직접 접촉은 하지 않지만 지면으로 서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게 하여 전문가들의 응답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정, 조정한 후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델파이 조사내용은 삼대가족 아파트가 한국형 주거문화 모델로서 타당하기에 관한 것으로 삼대가족 아파트의 주거개념, 한국형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아파트의 타당성, 중산층 주거문화에 대한 정책적 후원의 타당성, 중산층 삼대거주아파트의 규모, 주거문화 의식 확산에의 기여도 등이며, 분석방법에는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면접조사결과 및 논의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의 사전조사 성격도 띄고 있어 비교적 설문조사 내용과 비슷한 정도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으나, 설문조사 내용과 그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본고에서는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이 자녀세대 주부였고 면담조사 대상이 자녀, 노인 양세대였던 점을 강조하여 노인과 자녀세대의 응답내용을 비교한 부분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족수는 5명인 경우가 45.6%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세대의 구성은 56.2%가 편모로 가장 많았다.

노인세대와 주부는 대부분 직업이 없고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이 35.1%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160만원이, 월평균 생활비는 80만원-120만원이 각각 28.6%, 38.6%로 가장 많았다. 주부와 노인층 최소 어느한 세대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90.9%였으며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응답자의 69.9%가 모든일을 혼자 스스로 한다고 했으며, 노인의 59.6%가 건강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노인의 대부분이 건강하고 자녀에 대한 생활의존도가 낮았다.

조사대상의 주택은 93.0%가 자가였고, 74.5%가 자녀부부세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거주기간이 2-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50.9%). 계획주거와 일반주거의 비율은 비슷하였고(52.6%, 47.4%), 규모는 30평-40평 미만이 많았다(57.9%).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는 장남이 70.4%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 동거하는데 대하여 대부분 부부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동거기간은 3년-9년 사이가 가장 많았다(42.0%). 응답자의 66.6%가 결혼당시부터 부모님과 동거하였는데, 동거 당시에는 편진인 경우보다 양친인 경우가 더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에 대하여 주부는 반드시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의견(46.4%)보다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53.6%)이 약간 더 많았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동거의 책임자로는 장남이 37.0%로 가장 많았고 이와 비슷하게 아무나 여건이 허락되는 자녀가 33.3%로 지적되었다. 이에 비하여 노인의 74.1%가 현재의 자녀중 장남이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양세대간에 의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노인에 대한 중시도는 매우 높았다. 대부분의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은 자녀부부에게 있었으며 대부분의 가사일도 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삼대동거의 장·단점

(1)삼대동거의 장점

삼대동거로 인한 장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장점에 대한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주부 또는 노인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주부의 경우 삼대 동거의 장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의 항목으로 87.7%가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의 항목이 86.0%, '서로 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와 '부모와 자녀 상호간에 배울 점이 많다'의 항목이 각각 78.9%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19개 항목 중 16개 항목이 50%이상 지지됨으로써, 삼대 동거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삼대 동거의 장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서로 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의 항목으로 94.5%가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보호에 유리하다'의 항목이 87.3%, '어려운 일의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다'의 항목이 81.8%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17개 항목 중 14개 항목이 50%이상 지지됨으로써, 주부와 같이 노인들도 삼대 동거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와 노인이 지적한 장점항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주부의 경우 심리적 측면, 특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측면과 손자녀의 교육적 효과인 사회문화적 측면을 장점으로 지적하였고, 노인의 경우 심리적, 신체적인 의지 측면을 삼대동거의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삼대 동거로 인한 여러가지 장점 중 가장 우선되는 장점을 상대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주부의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살므로 몇

멋하다'가 21.1%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가 15.8%, '서로 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가 12.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노인의 경우 '서로 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가 72.0%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부와 노인 모두 삼대동거에 따른 장점의 일순위를 심리적인 측면에 두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주부와 노인 모두 삼대동거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높고, 주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점과 손자녀의 교육적 효과에 좋다는 점을, 노인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을 삼대동거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종합할 수 있다.

(2)삼대동거의 단점

주부의 경우 삼대동거의 단점은 장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지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삼대동거의 단점 중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로 78.9%가 지적되었다.

노인의 경우도 주부와 같이 삼대동거의 단점은 매우 지적율을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부에 비하여 그 비율이 더 낮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로 46.3%였다.

주부와 노인이 지적한 단점항목을 비교해 보면 장점에서와 달리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부와 노인의 응답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실내 장식에 대한 의견과 취향이 다르다'였고, '외출시 신경이 쓰인다',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상호간에 잔소리나 간섭이 있다', '개인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가사일이 많아서 힘들다.' '손자녀 통제 및 교육이 어렵다' 등의 항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주부가 노인보다 생활행위적 측면의 단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삼대동거로 인한 여러가지 단점 중 가장 우선되는 단점을 상대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주부의 경우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가 17.9%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웬지 긴장되고 불안하다'가 14.3%로 지적되었으며, 노인의 경우도 주부와 같이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가 26.5%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외는 각 항목별로 소수 지적하고 있다. 단점이 없는 경우도 16.4% 나타났다.

따라서 삼대동거로 인한 가장 큰 단점은 서로 눈치를 봐야 한다는 심리적 측면 이외에 크게 두드러지는 항목은 없었으며 그외에 다양한 항목이 지적됨으로써, 여러 측면에 불편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삼대동거의 장·단점의 비중 비교

조사대상이 삼대동거의 장·단점 비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장·단점 항목중 응답된 항목들을 비율로 계산하여 장·단점 각각에 대한 것을 비교하였다. 즉 전체문항의 1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1등급으로, 10%이상-2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2등급으로, 20%-3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3등급으로, 30%이상-4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4등급으로, 40%-5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5등급으로, 50%이상-6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6등급으로, 60%-7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7등급으로 70%-8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8등급으로, 80%이상-90%미만을 지적하였을 경우 9등급으로, 90%이상을 지적하였을 경우 10등급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먼저 주부의 경우 장점은 8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등급, 7등급과 10등급으로 각각 구분됨으로써 항목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적비율을 보이고 있다. 단점은 2등급이 26.3%로 가장 많았고, 3등급에서 8등급의 범위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분포를 보이고 있어 장점에

비하여 지적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장점은 6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등급에서 10등급의 범위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단점은 1등급이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등급이 22.8% 나타남으로써 장점에 비하여 지적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항목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정점의 인식은 주부와 노인 모두 높은 편이나 노인의 경우 단점의 인식이 주부에 비해 월등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가구의 장단점 지적 비율을 근거하여 보았을 때 현재 삼대동거 가족에게는 동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느끼는 양상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장점을 취하고자 하여 동거하면 단점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점을 제거하고자 하여 별거하면 동거시 있을 수 있는 장점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선호하는 주거공간

조사대상의 희망 거주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Borgadus의 Interpersonal distance와 유사한 거리적 척도 즉, 같은 집, 같은 건물(동), 같은 단지, 같은 구, 서울시내, 지방, 다른나라 등의 7단계 거리 척도를 사용하여 이상적인 희망 거주거리, 주거대안을 고려했을 때 희망하는 거주거리, 이상적인 희망 거주거리와 현실적인 희망 거주거리의 변화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거주거리는 주부의 경우 서울시내가 3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같은 집이 21.1%, 같은 구가 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노인의 경우 같은 집이 61.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접주거와 같은 단지가 각각 10.9%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거주거리를 질문한 경우는 현대적인 동거개념과 앞으로 가능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때의 응답결과는 같은 집에 동거하는 것이외에는 별거로 생각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78.9%, 노인의 28.2%가 별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관점에서 노인이 주부보다 동거를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이상적인 거리를 본 연구에서 간접적인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이용하였으므로 주부는 삼대동거를 희망하는 율이 적게 나타나 삼대동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일반 주거형태뿐 아니라 노인과 동거하는데 잇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주거의 대안이 있다는 상황과 현실적인 제약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이사를 가겠다고 한 거리는 주부의 경우 같은집이 54.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접주거 15.8%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같은집이 69.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접주거 16.4%로 나타났다.

노인과 주부의 현실적인 동거 희망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삼대동거의 범위로 정의한 같은 단지 이내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주부의 86.0%와 노인의 96.4%가 동거를 희망하여 현실적 관점에서의 동거지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집을 동거로, 인접주거를 인거로, 같은층이나 같은건물, 같은단지 내의 거주를 근거로 하고, 그 이외는 모두 별거로 구분하여 이상적인 희망 거주거리와 현실적인 희망 거주거리의 변화 유형을 파악한 결과, 주부의 경우 '별거⇨동거'가 2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거⇨동거'가 21.1%, '별거⇨별거'가 14.0%, '별거⇨근거'가 12.3%, '별거⇨인거'가 10.5%로 비교적 다양한 변화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주거리는 가까워 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노인의 경우 '동거⇨동거'가 61.1%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부는 별거를, 노인은 동거를 지향하나 다양한 주거대안이 있는 경우 주부와 노인 모두 동거를 지향하였다. 특히 별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다가 다양한 주거대안이 있으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거, 인거, 근거를 선택하겠다는 49.1%는

삼대가족 아파트라는 주거대안이 삼대동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최소비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설문조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족수는 평균 5.4인 이었으며, 주부의 연령은 평균 40.6세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행정관리직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26.5%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주부의 경우는 별도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무직, 은퇴자 포함)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100-140만원 미만이며, 월평균 생활비는 100-14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재의 주택을 선택할 때 삼대가족인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는가 하는 물음에는 74.0%가 '고려하였다'라고 답하였고,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방의 갯수가 59.7%, 화장실의 갯수가 58.1%로 많이 지적되었다.

현재 주택특성의 경우, 아파트 소유형태는 자가 대부분이었고 법적 소유자는 남편 또는 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규모는 31-35평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동거하는 자녀는 장남이 대부분이었으며 자녀세대가 위해서 모신 경우와 대안이 없어서 모신 경우가 비슷한 비율(52.2%, 47.8%)을 보였고 노부모와 동거하는 이유는 의무감에서가 가장 많았는데(70.5%) 이는 면접조사결과 노부모를 자발적으로 위해서 모시고 있다는 결과와 상충된다. 이와 같이 두결과가 상충되는 것은 면접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자 했으리라는 점과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면접보다는 더 솔직한 응답을 했으리라는 점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부모세대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노부모가 가족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 노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은 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삼대동거의 장·단점

삼대동거시 장점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므로 떳떳하다'가 81.1%,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가 80.5%,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가 67.6%였으며, 가장 우선되는 장점을 상대적으로 선택하였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살므로 떳떳하다'가 35.6%,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가 23.8%, '서로 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가 8.0%였다.

삼대동거시 단점으로는 '외출시 신경이 쓰인다'가 69.6%,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 터놓고 지내지 못한다'가 68.8%,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충돌이 있다'가 63.2%였다. 가장 우선되는 단점을 상대적으로 지적하게 하였을 때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 터놓고 지내지 못한다'가 21.5%,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충돌이 있다'가 13.2%, '웬지 긴장되고 불안하다'가 11.9%였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므로서의 장점에 '떳떳하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가 많이 지적된 것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므로서의 단점을 보면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못한다',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충돌이 있다', '부부만의 시간이 갖기가 힘들다', '외출시 신경이 쓰인다'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이는 삼대동거시 불편한 점으로 앞으로 삼대동거 전용아파트 계획시 생활과 공간을 어느 정도 분리하여 이러한 측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줄여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삼대동거시 장·단점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장·단점으로 각각 열거된 항목갯수중 지적한 항목수를 총 갯수로 나누어 장·단점지적 비율로 각각 계산한 다음, 이 두 비율을 이용하여 장점 대 단점 인식 패턴을 창조하였다. 장점지적 비율이 일반적으로 단점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

하여 장점비율이 단점비율보다 월등히 높다고 결정하는 기준을 보다 높게 정하여 범주화 하였다. 그 결과 장점이 단점보다 50%이상 높고 단점이 장점보다 30%이상 높은 경우를 보면, 장·단점이 비슷하게 지적되는 경향이 78.0%, 단점지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12.2%, 장점지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9.8%였다.

장점이 단점보다 60%이상 높고 단점이 장점보다 40%이상 높은 경우를 보면, 장·단점이 비슷하게 지적되는 경향이 88.1%, 단점지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7.6%, 장점지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4.2%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삼대동거시 주부가 느끼는 장·단점 비율은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삼대동거 전용아파트 개발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단점을 없애기 위해 별거를 하면 장점을 잃어버리고 장점을 취하기 위해 동거하면 단점을 고수해야 하는 갈등상황을 가질 수 밖에 없기에 장점을 지키면서도 단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주거대안의 개발이 주거문화 및 가족복지를 위해 필연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본다.

3) 선호하는 주거공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노부모와의 원하는 거주거리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이 16.4%, 같은 단지가 16.2%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거주거리를 질문한 경우,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현대적 동거개념과 앞으로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제시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때의 응답결과는 같은 집에 동거하는 것이외는 별거로 생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사대상의 약 90.0%가 같은 집에 아닌 별거를 원하고 있었다. 이 이상적인 거리를 본 연구에서 간접적인 스트레스 측정척도로 이용하였으므로 조사대상의 약 90.0%가 삼대동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중에서 같은 단지내까지의 거주거리에서의 거주를 위한 36.8%는 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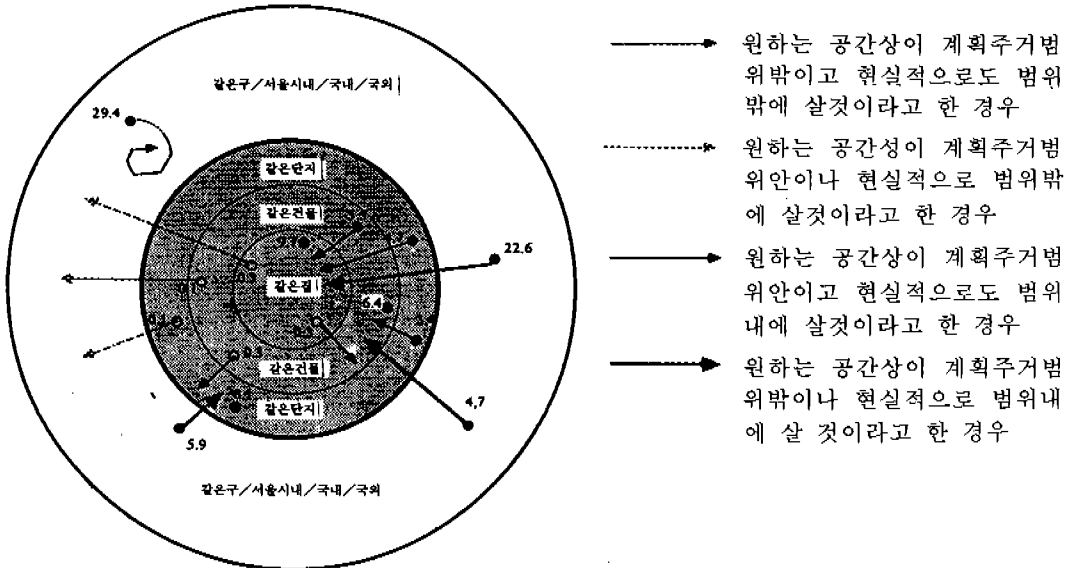
구에서의 현대적 동거개념에서 볼때 계획주거가 특별히 유인가가 없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로 추정된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가구의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고 삼대동거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안이 개발 보급된다면 어느정도 거리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같은 집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내에 15.9%, 같은 동(건물)이 15.1%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삼대동거 개념인 같은 단지내까지는 70.0%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현실적으로 원하는 거주거리는 삼대가족을 위한 주거대안이 다양하고 각자의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의 선택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단지내 거주를 위한 70.0%는 곧 삼대가족 주거대안의 현실적 필요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상적인 거주거리에서 나타난 동거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동거의 비율이 증가되었으므로, 계획주거의 잠재적 효용성이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삼대가족 아파트의 잠재적 효용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거주거리가 더욱 가깝게 좁혀들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별거에서 같은 단지내 현대적 동거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좁혀 온 비율인 33.2%는 무엇보다 주거대안의 효용성을 확실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대안이 없을 경우 같은 구 이상의 거리로 별거하겠다고 한 대상의 비율인 22.6%가 주거대안이 있을 경우 같은 집까지로 좁혀들어 온 것은, 현재 절충적 주거유형이 없을 경우 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 경향을 가진 가족이 절충적인 주거유형이 있을 경우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이상적 거주공간상과 계획주거가 개발되었을때 현실적으로 선택한 거주공간상의 차이로 본 계획주거유형의 잠재적 효용성

3. 델파이 조사결과

1차, 2차, 3차에 걸쳐 진행된 델파이 조사결과는 세번째 단계의 결과가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고 이 최종단계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 및 논의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대가족형 아파트가 한국적 주거문화 모델로써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78.8%로 지배적이었으며, 이런 아파트의 주거개념은 노인과의 동거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노인복지를 위한 주거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87.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런 아파트(단지)가 새로운 주거문화 의식을 보급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가 63.6%, '아주 기여할 것이다'가 27.3%로 나타나 응답자의 90.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차원에서의 주거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으나, 주거문화 보급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하

가 하는 질문에 '바람직 하다'가 77.4%로 나타나, 중산층 주거문화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 아파트의 크기(분양면적)를 기준으로 하여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는 범주는 최소 15평에서 최대 60평까지를 언급하였으나, 최소 규모는 26-30평으로 보는 비율이 38.6%(30평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의 중산층 범주는 일반적 기준과 달리 비교적 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대가족형 아파트는 한국적 주거문화 모델로써 합당하며 국민의 새로운 주거문화 의식을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삼대가족형 아파트의 주거개념은 일반 주거개념과는 달리 노인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주거개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나, 노인의 문제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문제와 욕구가 저소득층에만 제한되지 않

고, 전 노인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거문화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중산층 육성의 집중적인 범주는 아파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최소 25평 최대 45평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삼대가족형을 유지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와 설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조사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노부모의 유형은 편모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에서 아직까지 딸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 보다 아들 특히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노인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율이 높았으나 주부의 경우는 반드시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동거 이유에선 자발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 극히 적는데 비해 의무감에서 노인과 동거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현 삼대동거 가족의 위상이 외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한국의 현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은 선가정 후사회보장 제도로, 국가는 자녀세대에 노부모를 부양하라고 하는 실정인데, 현재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에서도 자녀세대의 90%가 노부모 부양을 기피하고 있는 반면 같이 사는 부모중 70%가 동거하기를 원하고 있어 제3의 절충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삼대동거시 장단점 인식정도에서 아직도 한국사회가 지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좋은 면을 느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서로 눈치

를 보거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이 동거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단점 인식비중을 보면 삼대동거시 장·단점을 동시에 느끼는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점을 취하고자 동거를 하면 단점을 감수해야 하며 단점을 제거하고자 별거를 하면 동거시 있을 수 있는 장점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즉 심리적 안정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동거를 하면서 생활행위 측면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세대간 공간의 분리를 유도하는 주거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현대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부부 중에서 대부분이 같은 집이 아닌 거리에서 떨어져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과반수가 단지밖 이상의 먼 거리에서 살고 싶다고 하여 노부모 동거시 심리적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다. 단지내 근거거지를 포함한 새로운 동거개념의 주거형 즉, 삼대가족 아파트의 주거대안이 개발되면, 대부분이 이 주거형에서 살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별거를 이상적인 거주형태라고 여기다가, 현재의 일반아파트와는 다르게 개발된 새로운 주거대안이 있을 경우 동거를 희망한 응답율이 상당히 증가된 것은 새로운 동거개념이 포함된 주거대안인 삼대가족 아파트가 생긴다면 노인과 동거 가능성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삼대가족 아파트의 잠재적 효율성을 암시한다.

또한 전문가 조사에 의해서도 삼대가족 아파트는 노인과 동거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노인복지 위한 주거대안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한국적 모델로써 합당하다는 견해를 보여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 새로운 주거문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삼대가족 아파트의 개발이 실수요자에게 필요하며 그 효율성이 있으며 새로운 주거문화 보급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삼대가족 아파트는 현대 산

참 고 문 헌

- 1) 대한주택공사(1986), 「삼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시범개발을 위한 토론회」.
- 2) 민경애, 김혜정(1987),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계획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 1. 83-92.
- 3) 박연수(1986), “청년의 부모와의 동거의식 및 동거시 주거조건에 관한 고찰”. 한양대.
- 4) 박재간(1986),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 기능”, 「한국노년학회」 5.
- 5) 박태환(1988), “도시지역 노부모를 위한 주거 시설의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 5. 43-58
- 6) 신경주(1989), “중년의 주요구 측면에서 본 3대 동거주택의 조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 5. 71-84.
- 7) 이연숙(1992),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 8) 이혜순(1987), “중년층의 3대 동거주택 조건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 9) 조원덕(1984), “직계 3세대를 위한 주거계획”. 충남대.
- 10) 지순, 윤복자(1986), “3세대 주택의 개선방향”. 「주택정보」 1986, 9.
- 11) 현두일(1976), “한국 노인의 생활구조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건국대 학술연구원.
- 12) Altam, L. et al. (1984),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ew York:Plenum Press.
- 13) Delvin, A. S.(1980), “Housing for the Elderly”. 「Environment and Behavior」 12. 451-466.
- 14) Inman, M. (1981), “Influences of Life Cycle Stage on Family Social Climat and Attitudes towar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Resources in Education」 November.
- 15) Lawton, M. P. (1975), 「Planning and Managing Housing for the Elderly」. New York:Wiley.
- 16) Moos, R. & Moos, B. (1986),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 Family Process」 15. 357-371.
- 17) Newmark, N. I. & Thompson, P. J. (1977), 「Self, Space and Shelter:Introduction to Housing」. Sanfrancisco:Caufield Press.
- 18) Rice, A. S. & Tucker, S. M. (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naming Strees Macmillan」.
- 19) Zimring, C. M. (1981), “Stress and The Designed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7. Nol 145-171.